



평화대공원 조성 투트랙 개정 돌파구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동시 개정 추진 국방부 “무상 사용 근거부터 마련해야 논의 가능” 道 “올해 안에 모두 개정 추진... 농지 최대한 보전”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부지이자,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본보와 통화에서 “제주도가 요구한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 방안을 검토하려면 우선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부터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법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 군사 유적으로 평화대공원 전체 부지(184만9672㎡)의 91%(169만㎡)를 차지하고 있다. 알뜨르 비행장

을 평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2007년 수립됐지만 이후 14년째 첫 삽도 못뚫었다.

알뜨르 비행장을 대체할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남겨둘 수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조건 없는 양여를 주장하는 제주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에는 ‘민군복합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평화대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초 제주도는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을 포기할테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국방부는 ‘제주특별법에 무상 양여 조항만 있을 뿐 무상 사용 조항이 없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무상 사용 조항을 신설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공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용 기한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사용료 장기 면제와 무상 양여의 길을 열어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있지만 이 특별법조차도 영외교육도시를 조성하거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제한한다.

이런 법적 한계 탓에 제주도는 제

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모두 고쳐야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개정이 안되면 무상 사용은 사실상 물건너 간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는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어서 두 법안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모두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뜨르 비행장 중 약 80%를 국가로부터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농민 문제에 대해선 “전체 부지 중 전시장과 도로로 쓰일 곳만 제주도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평화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무상 사용 문제가 풀리면 임대농민들과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보가 관건”

대통령자치분권위·대신협 어제 '자치분권 2.0' 토론회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와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13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인천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신협회장, 대신협 사장단,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지역 정책들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 곳곳이 특색 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그 과정에서 자치분권위원회는 물론 지역 언론계, 학계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이양입법 제정, 재정의 분권화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국민만을 향한 뜨거운 진정성과 총명한 자신감, 겸허한 자세로 남은 시간 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성과 그 의미를 짚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자치분권 추진 배경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 과제’ 발제에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의 필수 소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 1면에서 계속

이 여파로 발생한 집단 감염이 크게 4개의 범주를 이뤄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부 관련 현재까지 총 54명이 확진됐다. 이어 제주시 일가족 감염 관련 15명, 서귀포시 제사모임 관련 5명, 2개 목욕탕 관련 12명이 확진됐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이날 13건이 발생했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의 주원인을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꼽고 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지 않고 다수가 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섭취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추가 확진된 이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832·833·834번은 모두 국제대학교 레슬링부 및 제주대학교 확진자와 관련이 있다. 831번은 향수목욕탕 관련 확진자인 810번과 동선이 겹쳤으며, 830번은 818번의 가족으로 파악됐다.

836·838번은 현재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이다. 다만 이중 837·838번은 경기도 성남 지역 및 부산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39번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직원으로 해당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다. 강다혜기자



고 이선호씨 빈소 조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호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검토 환영”

도의회 코로나대응특위 “특별법 개선안에도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이하 코로나특위)는 평택항 화물 적재 작업 중 승선 사고 후

이제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 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위반현장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코로나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선제적으로 근로감독관 사무의 제주 이관을 제안해 최종적으로 포함되고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주는 보다 조속히 해당 조문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전기(산업)기사 필기 취득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2021.05.17.~2021.08.09.
교육시간: 19시~22시
교육내용: 전기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 대비
문의: 725-5545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문의: 725-5545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문의: 725-5545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환경 내일이면 늦으리”

(주)대승

대통령 표창수상 | 환경 경영시스템 14001 인증
환경부장관 표창수상 | 미국 FDA Medical device
한국 신진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친환경 제품 생산 수출업

디톡스 풋패치(파스형)
운동 전후, 피로, 통증완화, 혈액순환, 불면증 등

탈취제(식물성 인·축 무해)
광범위 악취 삭, 동물농장, 축사, 돈사, 계사,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장, 하수, 모기서식처, 퇴비발효 적장, 등·어 가공 작업장 등

농업용(미래의 식물방어 생산물질)
종합영양제, 응애-(알), 총채, 깍지, 수세화복

**농업용 광어목초액 액비
농업용 활성탄(개스미 숲)**

http://www.dsbio.net
본사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3길 13-1
Tel : (064)757-3477, 782-6979
(주)대승팀장(문의사항) : 010-7542-3477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굴고리 + 인피고정판 + 인피밴드 = 굴고리 적용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은 전에 미리 던져 들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원터치&조간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용.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 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줄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속 비스듬에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